

北 내각부총리 만난 경제인, 한반도 新경제 앞당기나

리용남 부총리, 北 경제정책 실제 구체적 협약보다 미래가능성 주목 JY, 방북 직전까지 관련사안 점검

평양에 도착한 경제인들과 공공기업 대표들은 오후 3시 30분경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번 대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중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이번 리 내각 부총리와 우리 측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아니어도 미래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젠테이션 브리핑에서 "우리가 당장의 결과물보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본다면 경제인들의 역할 기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인들이 만난 리 내각부총리는 떠오르는 북한 경제정책의 실세다. 베이징 외국어대를 졸업한 중국 유학파로 1994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동행하는 구광모 LG 회장(오른쪽부터), 최정우 포스코 회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최태원 SK 회장이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평양행 공군1호기에 탑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년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무역상, 대외경제상을 지냈고 2016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6월 내각부총리까지 맡았다.

이번 경제인 수행단에는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오영식 코레일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과 기관 대표 등도 평양을 찾았다.

이재용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 위원장 등 IT기업 관계자도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으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

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은 삼성 총수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당시에는 이근희 회장을 대신해 윤종용 부회장이 방북길에 올랐다.

향후 삼성과 북한 간의 사업적 인연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이번 방북 직전까지 만만

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4대 기업 중 유일하게 총수 본인이 삼척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진 방북 교육에 직접 참석했다.

당일 새벽에는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사옥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해 북한에서 진행될 면담 등을 앞두고 관련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의 경우 2000년과 2007년에는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엔 그의 아들인 구광모(썬) LG 대표이사가 평양 땅을 밟으며 그룹 총수의 세 번째 방북이다. 최태원 SK 회장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18일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 수행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며 경제인들의 정상회담 참여는 남북 관계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들의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MOU(업무협약)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18일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고 있다.

文 대통령-김정은, 무개차 카퍼레이드 10만 평양 시민들 연도 환영

북한은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시민 10만명을 동원하고 카퍼레이드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무진에 올랐으나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해 평양시민의 연도 환영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연도 환영은 순안공항-3대혁명전시장-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영빈관까지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버드나무거리의 3대혁명전시장 주변에서 멈춰 서자 한복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다시 김여정 제1부장이 이를 넘겨받았다.

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이어 무개차에 동승했다.

정장과 한복 차림의 평양 시민들은 도로 양옆에 늘어서 조화와 인공기-한반도기를 흔들며 '조국통일'을 외쳤다.

청와대는 이날 연도 환영에 나온 시민수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밝혔다.

21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무개

차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 손을 높이 흔들며 좌우에 늘어난 환영 인파 얼굴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었고, 김 위원장은 가끔 손을 내리기도 했다. 퍼레이드 도중 두 정상은 종종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두 정상 도착에 앞서 연도에서 기다리다가 문 대통령이 받은 화환을 챙기는 등 직접 의전활동을 했다.

북한 정권의 성과물을 전시한 3대혁명 전시장 주변서 무개차에 동승한 남북 정상은 이어 지하철역인 전우역과 지하철도사적관인 '전승혁명사적관'이 있는 룡흥사거리쪽에서 려명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2016년 새롭게 화려하게 조성됐으며 입구에는 북한 유일의 인문이공계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전용 고층 아파트들이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청사들이 자리했다.

이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 집무실 및 저택이었고, 이 때문에 려명거리 조성 이전에는 김 주석을 찬양하는 '금성거리'로 불리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3당 대표·특별수행원, 김영남·안동춘 접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정당 3당의 대표들과 특별수행원들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각 정당의 대표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들은 18일 오후 각각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부의장을 접견하고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김영남은 지난 1998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1928년생인 그는 고령임에도 현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맞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 개발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며 핵 무력 강화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접견에 앞서 오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개최된 환영식에는 북한의 헌법상



평양 순안공항 공군 1호기 앞에 영접하는 김영남·리선권·최룡해 모습

/연합뉴스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과 '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 2명이 나란히 모습을 보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옆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남북 방북단을 맞았다.

공식환영식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부위원장 외에도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차희립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도열했다.

김영철 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순안공항 청사에서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수행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김정은의 그림자'

로 불리는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김 위원장 부부를 따랐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국태·김용순·최태복 노동당 비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맞았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는 행정구역상 군사분계선(MDL) 지역을 포함할 한해북도의 당시 당 책임비서이던 최룡해와 최승철 당시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군사분계선에서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베일 속 노동당 본부청사 공개 '눈길'

심도있는 대화 기대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첫 회담을 해 주목된다.

북한이 본부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3층 건물인 이곳은 '당 중앙'으로 일컬어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만을

위한 건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을 찾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첫 정장으로 알려졌다. 2000년과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두 차례 모두 회담은 남측 대통령이 묵는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숙소가 아닌 김 위원장의 공식 집무실에서 회담함으로써 공

식성을 강화함은 물론 보다 더 깊이 있는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머무는 집무실은 최상급 보안 중의 하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외부 인사들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곳이 공개된 것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김 위원장과 면담할 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사절단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이곳의 연회장에서 만찬까지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